

2023.09.20(수)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3-09-20 오전 4:19

수정한 날짜: 2023-09-20 오전 4:25

2023.09.20(수) 증권사리포트

현대차

"Peak out" 그 다음은

[\[출처\] 유안타증권 이현수 애널리스트](#)

'Peak out' 우려 영향은 감소할 것

동사는 2Q22 약 3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시현한 후 4개 분기 연속(3Q22은 품질관련 일회성 비용을 제외) 약 3~3.5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2Q23은 4조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OPM 10%)을 기록. 2Q23 글로벌 완성차 OEM 중 상위권에 속하는 OPM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Peak out' 이라는 우려가 더 부각. 3Q23 예상 판매대수는 102만대(중국 제외 97만대)로 전분기비 약 -3% 감소할 것으로 추정. 하지만 판매단가 상승과 원가 감소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원/달러 환율(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3.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OPM은 상반기와 유사한 9% 중반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주가는 이미 'Peak out' 우려를 십분 반영하여 7월 초 이후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는 주가가 우려보다는 견조하게 유지되는 실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치열한 미국 EV 시장에서 공격적 행보 나타내는 중

미국 EV 시장은 연초 이후 IRA 이슈와 함께 타업체들의 가격 인하 등으로 경쟁이 치열. 현재 동사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EV는 IRA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오히려 미국 EV 점유율은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 3Q22~1Q23, 3%대 초반에 머물던 EV 점유율은 2Q23 5.5%, 3Q23(7~8월) 6.7%로 상승. 동사의 미국 차량 판매(소매기준) 중 EV 비중은 1Q23 4.4%, 2Q23 7.0%, 3Q23(7~8월) 9.5%로 확대. 이와 같은 동사의 공격적 행보는 의도적이라 볼 수 있어. 최근 현지 판매되는 EV 중 약 40~50%는 리스 등 IRA 혜택이 반영되는 물량으로 관측. 나머지 약 50%에 대해서는 IRA 혜택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수익성이 약화된 것으로 사료되나 현 시점에서는 점유율 유지 및 확대가 더 중요할 수 있어.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되는 시기인 '24년말~'25년초 이후에는 지켜온 점유율을 기반으로 IRA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또한 견조한 ICE 수익은 동사의 이러한 정책이 유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억원, %)

	3Q23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388,302	3.0	-8.1	394,976	-1.7
영업이익	37,626	142.5	-11.2	34,615	8.7
세전계속사업이익	44,482	117.8	-8.0	41,601	6.9
지배순이익	31,540	148.0	-2.5	28,018	12.6
영업이익률 (%)	9.7	+5.6 %pt	-0.3 %pt	8.8	+0.9 %pt
지배순이익률 (%)	8.1	+4.7 %pt	+0.4 %pt	7.1	+1.0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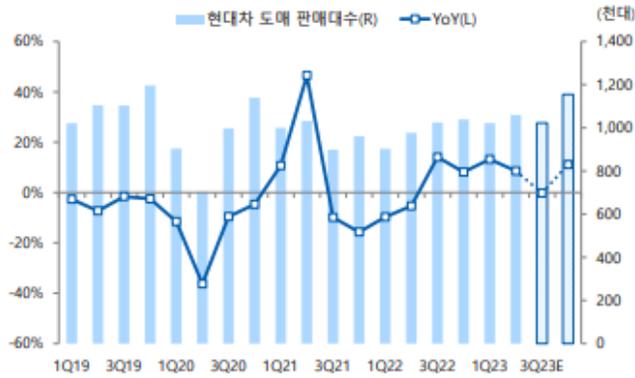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F	2024F
매출액	1,176,106	1,425,275	1,614,149	1,675,452
영업이익	66,789	98,198	153,537	156,199
지배순이익	49,424	73,644	128,927	132,644
PER	10.3	5.6	3.3	3.2
PBR	0.8	0.6	0.5	0.5
EV/EBITDA	12.3	9.0	6.8	6.3
ROE	6.8	9.4	14.6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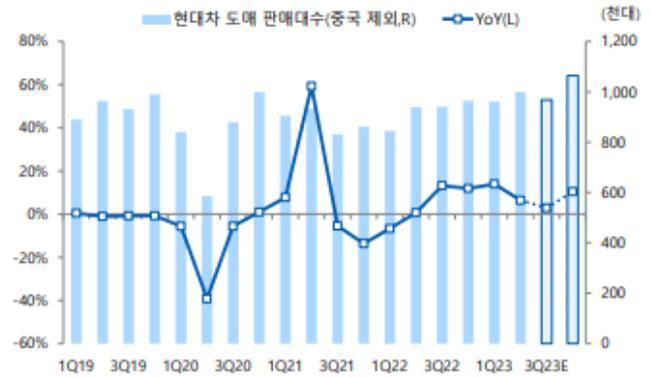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1] 현대차 도매 판매대수 -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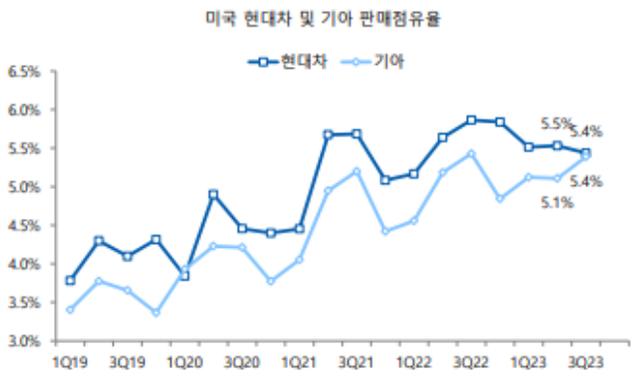
자료: 현대차, 유인타증권 추정

[그림-2] 현대차 도매 판매대수(중국 제외) -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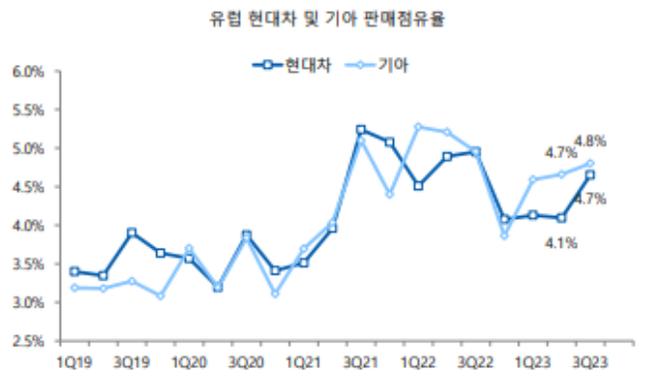
자료: 현대차, 유인타증권 추정

[그림-3] 미국 현대차 및 기아 판매점유율



자료: Automotive News, Marklines 추정, 주: 3Q23은 7-8월 기준

[그림-4] 유럽 현대차 및 기아 판매점유율



자료: ACEA 추정, 주: 3Q23은 7월 기준



카카오뱅크
고성장 은행주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애널리스트](#)

다시 서치라이트를 켜자

금융업종의 이베스트 서치라이트 시리즈 종목으로 카카오뱅크를 제시한다. 상장 당시 큰 주목을 받으며 시가총액이 40조 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12조원까지 하락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규제이슈에 노출된 영향이다. 여전히 타 금융주에 비해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차별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은행업종 내 지배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다시 카카오뱅크에 대해 서치라이트를 켜고 바라볼 시점이다.

목표주가 32,000원 제시. 수익성 개선추세 지속 예상

카카오뱅크에 대한 목표주가를 32,000원으로 제시하며 분석을 시작한다. 금융플랫폼 가치평가에 적합한 MAU 방식을 활용했다. 모바일 banking 시대에서 디지털 고객기반은 기업가치의 핵심 결정요인이다.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임박으로 은행업황 둔화가 예상되지만 카카오뱅크는 수익성과 성장성, 건전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여줄 여지가 크다. 풍부한 저원가성 수신기반과 가계대출의 낮은 대손율, 누적적 자산성장 효과로 수익성 개선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관심대상이 될 것

규제이슈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성장주의 특성상 당장의 배당매력 또한 높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24년 이후 금리사이클 전환과 함께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질 경우 재평가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주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nanci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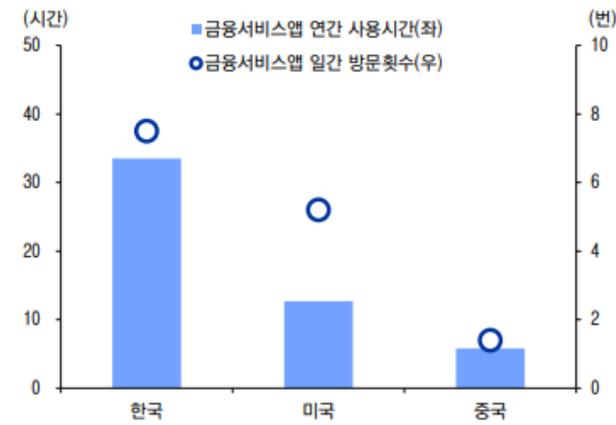
(십억원)	2021	2022	2023E	2024E	2025E
총영업이익	635	920	1,153	1,363	1,610
총전영업이익	349	526	691	823	977
영업이익	257	353	473	589	713
당기순이익	204	263	348	432	522
EPS(원)	430	552	731	906	1,096
증감율(%)	-	28.5	32.4	24.0	21.0
수정BPS(원)	11,550	11,929	12,606	13,378	14,309
RoE(%)	5.3	4.7	5.9	6.9	7.9
RoA(%)	0.7	0.7	0.7	0.7	0.7
PER(배)	158.1	63.3	35.0	28.2	23.3
PBR(배)	5.88	2.93	2.03	1.91	1.79

자료: 카카오뱅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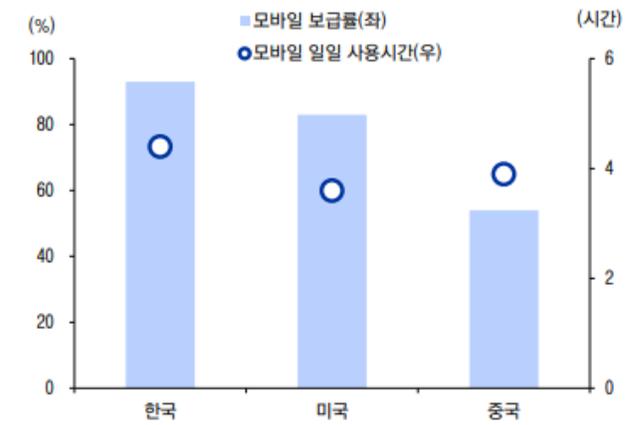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가별 금융앱 사용시간과 방문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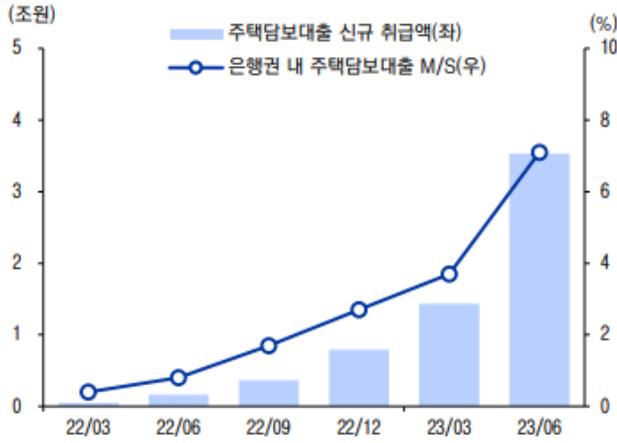
자료: App Annie, Dart

그림3 국가별 모바일 보급률과 사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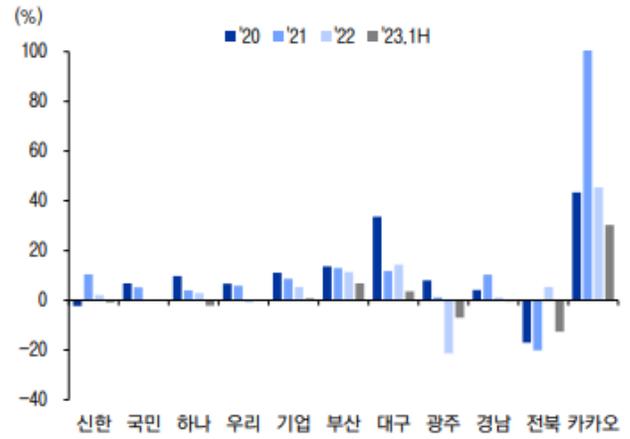
자료: E&Y, Dart

그림30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규모와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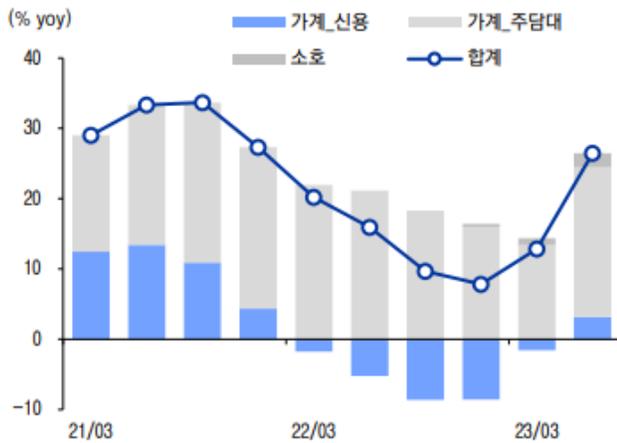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은행별 가계 주담대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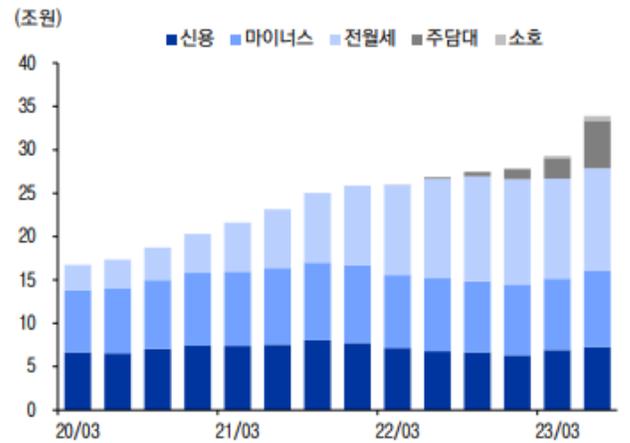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카카오뱅크 대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카카오뱅크 여신구성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에셋생명

기대를 너무 빨리 반영한 주가

[\[출처\] NH투자증권 정준섭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상향하나 투자의견 Hold 유지

미래에셋생명의 목표주가를 기존 3,400원에서 4,300원으로 상향 조정. 1) 목표주가 산정에 반영하는 할인율을 기존 70%에서 경쟁사 수준(60%)으로 조정했으며 2) 목표주가 적용 BPS를 '23년에서 '24년으로 변경. 다만 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투자손익, CSM 전망 조정에 기인함. 목표주가는 타깃PBR 0.18배(3년 평균 ROE 6.2%, COE 13.3%, 할인율 60%)에 '24년 BPS 24,538원을 적용해 산출

다만 목표주가와 현 주가의 괴리를 반영해 투자의견은 기존 Hold를 유지함.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부담, 우량한 K-ICS 비율, 대주주의 지속적인 지분 매입에 따른 수급 개선은 긍정적이거나, 이는 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음

유의미한 신계약 회복과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 필요

IFRS17 체제 진입으로 생/손보 업계가 적극적인 신계약 영업을 통해 CSM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래에셋생명은 다소 미진. '23년 상반기 미래에셋생명 APE는 1,206억원(-32.3% y-y)에 불과한 상황. 동사 주력 상품인 변액 투자형이 시장중속적인 점은 이해되나, IFRS17에서 지속적인 CSM 창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선은 필요해 보임

아울러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 검토도 필요한 시점. 상법 개정을 전제로, 동사의 추정 배당가능이익(3,230억원)은 연간 순이익을 상회하는 만큼 주주환원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전망. 배당 지급과 함께 보유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2022	2023E	2024F	2025F
보험손익	-	175	198	214
장기	-	175	198	214
PAA	-	0	0	0
투자손익	-	146	47	58
당기순이익	-	237	180	200
증감률	-	-	-24.1	11.3
EPS	-	1,816	1,377	1,533
PER	-	2.6	3.4	3.0
PBR	0.1	0.2	0.2	0.2
ROA	-	0.7	0.5	0.6
ROE	-	6.6	5.8	6.1
DPS	0	200	200	200
배당성향	-	11.0	14.5	13.0

단위: 십억원, %, 원, 배



유한양행

마리포사 성공 시, 반영 안 된 2가지 주목

[\[출처\] NH투자증권 박병국 애널리스트](#)

마리포사 성공 시, 증설 중인 유한화학의 숨은 밸류 반영될 것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5만원으로 14% 상향. 現증설 중인 유한화학 가치 7,500억원 등 반영. 유한양행 100% 자회사 유한화학은 CAPEX 900억원 규모증설, 올 4분기 완료. 동사는 길리어드 제품 위탁생산을 통해 '16년 23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 이후 길리어드의 판매 부진으로 '17년부터 적자 구간 지나옴

기존 70만에서 84만 리터로 증설 시 가동률이 추가로 하락함에도 증설하는 이유는 합성의약품 CMO 수요 때문. 당사는 유한화학이 안센의 글로벌 렉라자를 위탁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 안센 렉라자 임상 시료 생산 경험, 2) 안센의타 지역 위탁생산 필요성, 3) 렉라자 글로벌 승인 시점과 유사한 증설 시점 주목. '27년 영업이익 428억원 추정(GPM 85%). 합성의약품 CMO EV/EBITDA적용, 7,500억 밸류 산정. 최근 SK팜테코 통해 유한화학 또한 주목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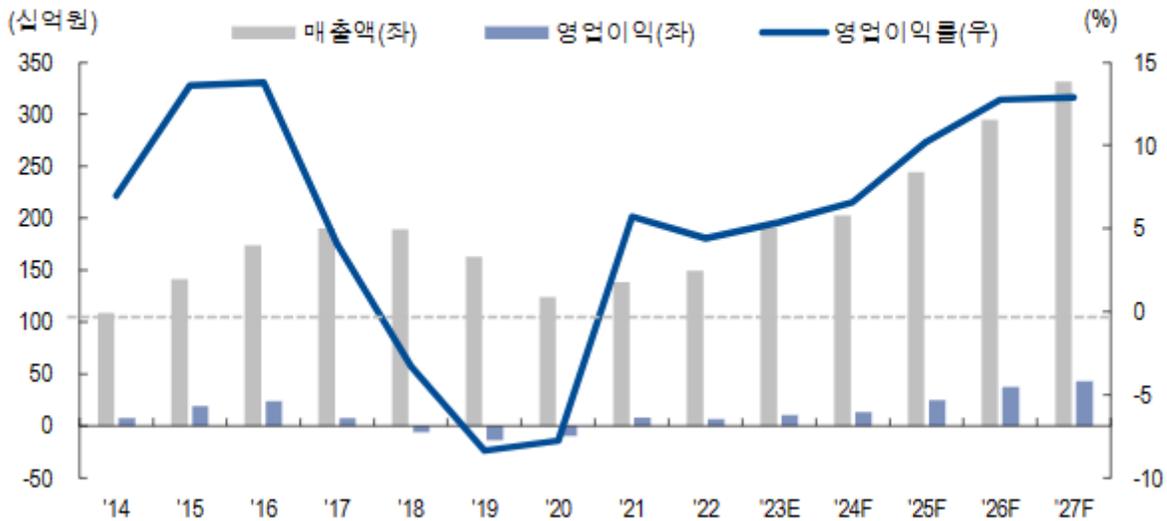
두번째 실험군인 레이저티닙 단독의 결과도 주목하자

마리포사 3상에는 병용 외에 렉라자 단독요법 실험군도 존재. 유한은 렉라자 단독 글로벌 3상(LASER301)을 진행하여 국내 1차 치료 승인. 다만 이는 1세대인 게피티닙과 비교한 임상이며 한국 포함 이머징 국가에서 실질 경쟁약은 3세대 타그리소 단독요법. 마리포사 3상은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단독요법 간 비교도가능할 것이며, 이는 EGFR 변이율이 가장 높은 아시아에서 M/S를 결정

	2022	2023E	2024F	2025F
매출액	1,776	1,900	2,232	2,749
증감률	5.2	7.0	17.5	23.2
영업이익	36	95	190	330
증감률	-25.9	162.9	100.3	74.0
영업이익률	2.0	5.0	8.5	12.0
(지배지분)순이익	95	88	191	301
EPS	1,235	1,143	2,485	3,922
증감률	-7.3	-7.5	117.4	57.6
PER	46.3	66.8	30.7	19.5
PBR	2.2	2.9	2.7	2.4
EV/EBITDA	51.2	39.6	23.4	14.2
ROE	4.9	4.4	9.0	12.8
부채비율	23.2	25.1	24.4	22.9
순차입금	-230	-277	-378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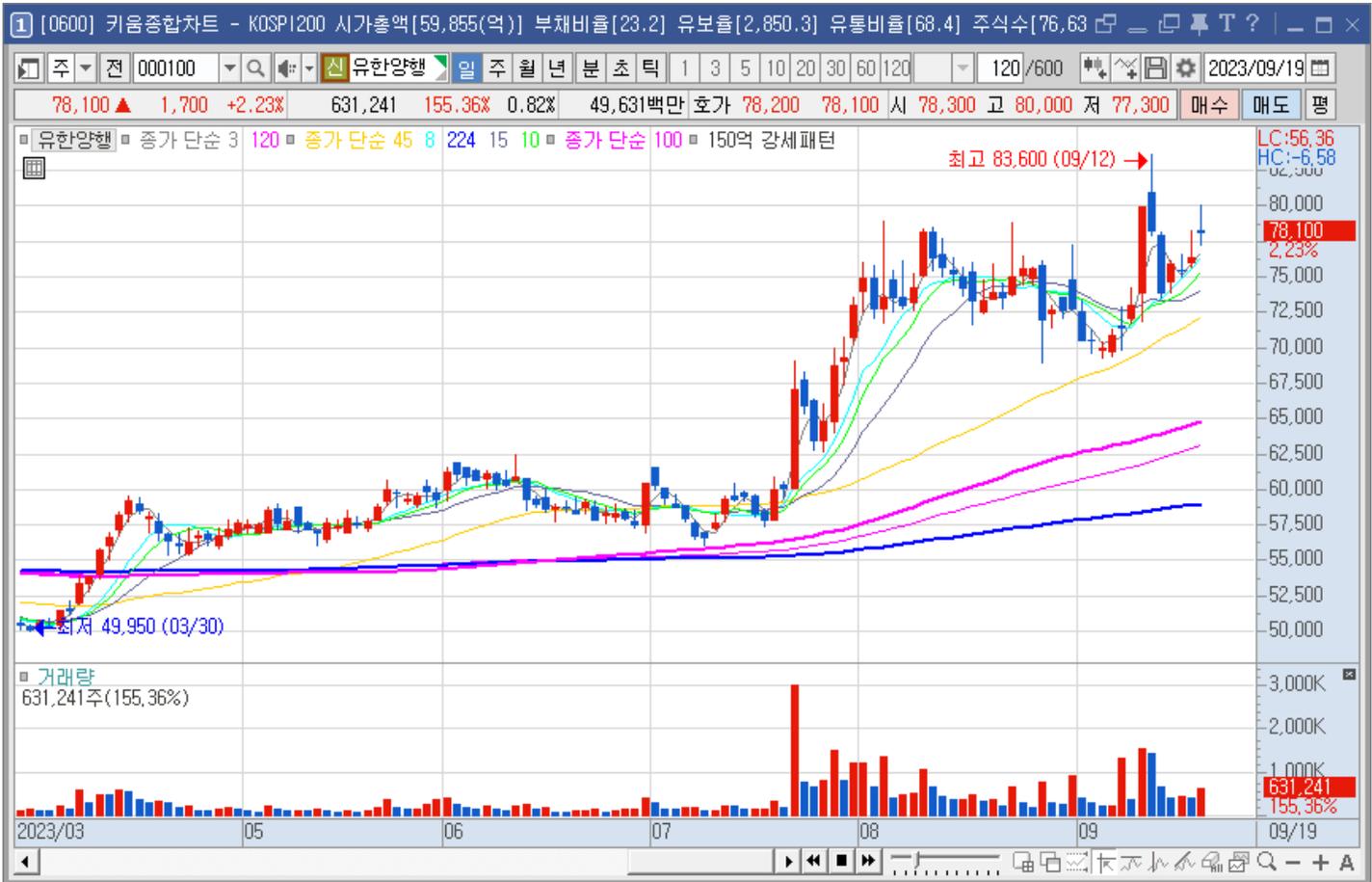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2. 유한화학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정



자료: 유한양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 전환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3Q23 영업적자 1.6조원, 기대치 부합 예상

SK하이닉스의 3Q23 실적이 매출액 7.9조원(+9%QoQ)과 영업적자 1.6조원(적자지속)으로, 당사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부가 제품 매출 비중 확대 효과로 DRAM 부문의 영업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storage 시장 수요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는 NAND의 대규모 영업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DRAM의 출하량 증가율(bit growth)은 +12%QoQ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가격(blended ASP)은 HBM 등의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효과가 반영되며 +7%QoQ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며 3개 분기만에 영업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NAND의 출하량 증가율(bit growth)는 예상보다 부진한 -3%QoQ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균 가격(blended ASP)은 단품 매출 비중 축소 등의 제품 mix 변화 효과가 반영되며 -1%QoQ 수준 하락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4Q23 영업적자 0.9조원 전망, 수익성 개선 지속

4Q23에는 매출액 8.6조원(+8%QoQ)과 영업적자 0.9조원(적자지속)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 공급 업체들의 대규모 감산 이후, 최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고객들의 구매 스탠스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

다. 당사는 DDR4의 유통재고가 올 연말·연초 정상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하며, 4Q23 DRAM의 고정가격 반등을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AND 역시 아이폰15 등 모바일 제품의 판매 회복에 힘입어, 일부 제품 중심의 가격 반등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4Q23 DRAM 부문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고, NAND도 영업적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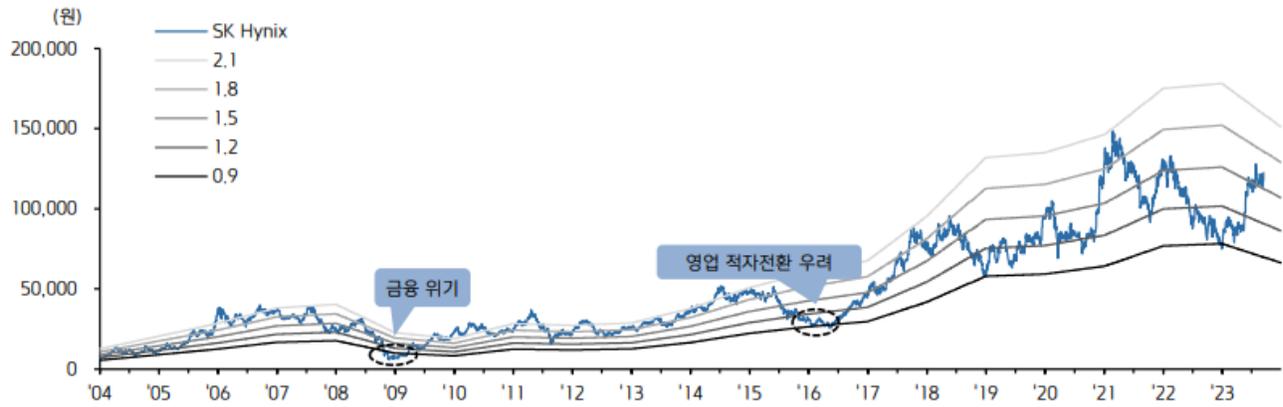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45,000원 유지

HBM 기대감으로 인해 메모리 업황의 흐름보다 더욱 빠른 시점에 반등이 나왔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당사 예상과 같이 상당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당사는 이번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메모리 제품들의 가격 반등이 가시화'되며, 기간 조정 이후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DRAM과 NAND의 현물가격 반등이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자들의センチ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45,000원을 유지한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42,998	44,622	28,933	42,665
영업이익	12,410	6,809	-8,788	9,089
EBITDA	23,067	20,961	5,312	23,543
세전이익	13,416	4,003	-11,882	6,399
순이익	9,616	2,242	-9,091	4,92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602	2,230	-9,042	4,900
EPS(원)	13,190	3,063	-12,421	6,731
증감률(%YoY)	101.9	-76.8	적전	흑전
PER(배)	9.9	24.5	-9.6	17.7
PBR(배)	1.5	0.9	1.6	1.5
EV/EBITDA(배)	4.8	3.7	17.4	3.4
영업이익률(%)	28.9	15.3	-30.4	21.3
ROE(%)	16.8	3.6	-15.5	8.8
순부채비율(%)	25.8	35.4	55.9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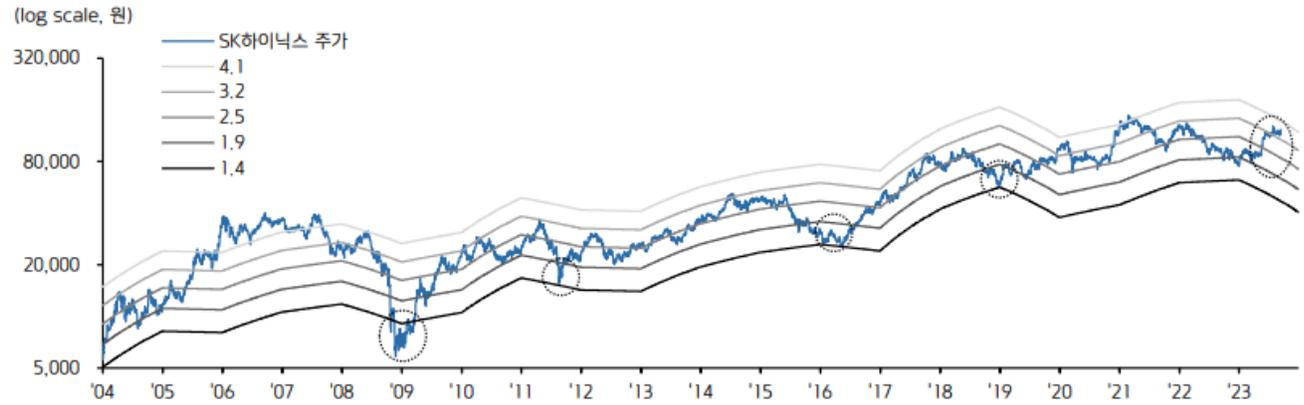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12개월 Trailing P/B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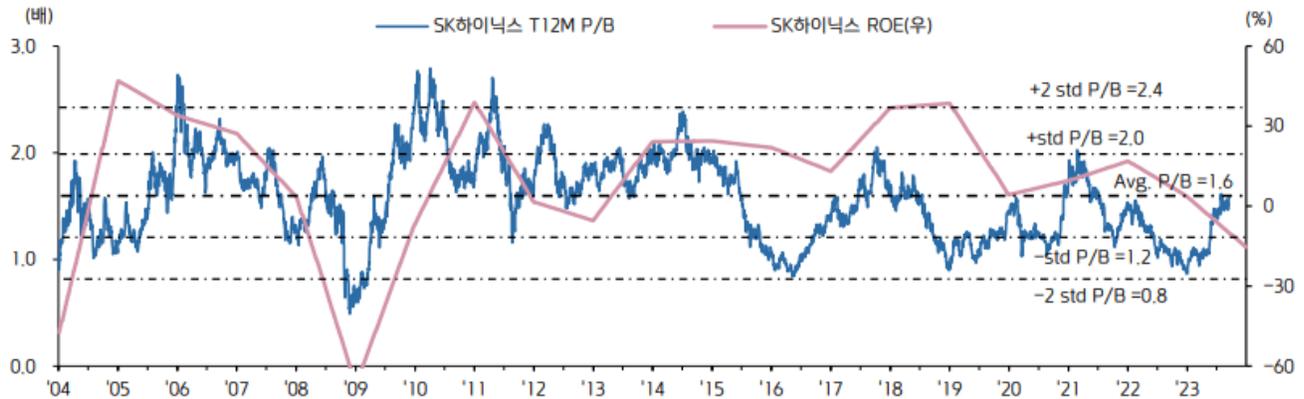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12개월 Trailing P/S Ratio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12개월 Trailing P/B vs. RO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클리오

또 최대 매출 하겠지

[\[출처\] 하나증권 박은정 애널리스트](#)

하반기 또 최대 매출 하겠지

하반기 방한 중국인 유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4분기부터 방한 중국인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150만명의 방한 중국인 유입을 전망했으나, 단체 관광 상품이 본격 판매되기 이전인 7~8월 누적 이미 50만명 수준으로 상반기 수준(55만명)에 근접했다. 하반기 중국 수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클리오는 또 다시 최대 매출 기록할 것으로 본다. 클리오는 브랜드 경쟁력, 스마트한 채널 전략으로 온라인/H&B 매출 대부분이 이미 2016년을 상회하고 있다. 무려 홈쇼핑 같이 신규 채널까지 공략하며 외형 확장 중이다. 당사는 2024년 방한 중국인 유입을 600만명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해당 객수 증가를 감안시, 클리오의 2024년 실적은 매출 4천억원(YoY+24%), 영업이익 406억원(YoY+48%) 전망한다. 과거 2016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클리오는 지금의 확대된 내수 지배력에 방한 중국인 객수 증가까지 더해져 영업이익은 100억원 이상 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인 없이도 이미 최대 매출을 넘어서고 있다

당사는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로 업종 실적 장세 기대하며 클리오를 최선호주로 제안하고 있다. 선정근거는 1)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없이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2) 관광객 본격 유입시 외형 증가 효과가 보다 강화되며, 3) 비중국 모멘텀이 이후 추가될 수 있는가가 기준이다. 클리오는 상반기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H&B/온라인/홈쇼핑 등 국내 주요 채널에서 판매 호조세를 보이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없이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게다가 내국인 수요가 집중되는 H&B 채널(올리브영)에서의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상반기 올리브영이 40% 이상 성장했는데, 클리오 또한 높은 기저에도 유사한 성과 기록했다. 또한 미국/동남아/일본/중국 등 수출이 추가적인 성장 요소다. 하반기는 내수 호조세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동남아 고성장, 일본 수출까지 성장 전환되어 어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실적 기대된다. 중국인 없이도 이미 최대 매출을 넘어서는 클리오는 중국인 관광객 모멘텀은 알파요소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0,000원 제시

클리오의 2023년 실적은 연결 매출 3.4천억원(YoY+24%), 영업이익 275억원(YoY+54%) 전망한다. H&B 매출이 2023년 1천억원(YoY+34%) 돌파, 2024년은 내수 점유율 확대/관광객 객수 증가효과 더해지며 1.5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회복/미국 & 동남아 고성장/유럽 진출 초입 등 클리오의 확장 전략은 계속 진행중이다. 클리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0,000원 제시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232.7	272.5	337.6	417.3
영업이익	13.9	17.9	27.5	40.6
세전이익	12.4	15.7	33.8	45.1
순이익	9.3	10.1	24.9	34.3
EPS	535	565	1,377	1,896
중감율	(4.63)	5.61	143.72	37.69
PER	34.11	28.67	18.77	13.63
PBR	1.78	1.45	2.09	1.84
EV/EBITDA	12.49	9.48	9.44	5.76
ROE	5.78	5.66	12.37	15.08
BPS	10,250	11,170	12,358	14,061
DPS	150	200	200	200





글로벌텍스프리
 중국 인바운드 증가 최대 수혜
[\[출처\] 하나증권 서현정 애널리스트](#)

MS 1위 환급대행업체

글로벌텍스프리는 국내 텍스리펀드(환급대행)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금 환급 서비스 절차를 대행 해주고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에 대한 부가세 10%의 30%, 공급가액의 3%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외국인 주요 쇼핑 장소인 백화점/올리브영/의료 기관 등 9,000개가 넘는 다양한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개별여행객 비중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폭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내점 고객국적별 비중은 2019년 기준 중국이 52%였다. 과점화된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방한관광객 추이와 성장의 궤를 함께하고 있다.

중국 인바운드(Q)의 증가 최대 수혜

사후면세점 시장 규모는 2023년 2.8조원, 2024년 3.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에서 시장 성장률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시내면세점처럼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영업레버리지를 이루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지만, i) 방한 관광객(Q) 증가에 따른 수혜, ii) 높아진 1인당 소비지출(P) 금액, iii) 과점화된 시장에서 높은 영업력과 시장점유율 바탕으로 매출 규모 증가에 따른 수익성 극대화가 기대된다. 7월 외국인 인바운드는 2019년 대비 71% 회복에 불과하지만, 글로벌텍스프리 월 환급 수수료 매출은 이미 2019년 수준을 상회했다. 이는 1인당 소비지출 금액(P) 증가에 기인한다. 앞으로 객단가가 높은 중국인 단체관광 효과까지 본격화되면서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2023년은 이미 2019년 수준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할 예정이며(2023년 매출 947억원(YoY 92%)), 2024년에는 1,203억원(YoY 27%) 이 예상된다.

면세점 헷지 플레이어

최근 소비패턴 특성 상 백화점과 올리브영 병원 등 글로벌텍스프리가 가맹을 맺고 있는 채널 중심 쇼핑액이 더 높아지는 점도 고무적이다. 높은 시장점유율, 영업력으로 개별여행객 볼륨 확대 시 최대 수혜 기업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60	10	38	49
영업이익	7	(11)	(14)	(3)
세전이익	8	(6)	(25)	(14)
순이익	6	(6)	(26)	(11)
EPS	156	(144)	(544)	(219)
증감율	(31.3)	적전	적지	적지
PER	23.9	(21.8)	(5.4)	(14.0)
PBR	1.6	1.4	1.8	1.9
EV/EBITDA	8.2	0.0	0.0	0.0
ROE	8.0	(7.8)	(34.1)	(12.9)
BPS	2,379	2,233	1,615	1,630
DPS	0	0	0	0

